

# 나쓰메 소세키의 『그 후』에 묘사된 나가이 세이고(長井誠吾) 고찰

권혁진\* · 다케이치 치에\*\*

kwon6134@hanmail.net · ctakeichi@hanmail.net

## Contents

1. 서론
2. 나가이 세이고와 나가이 우메코 관계
3. 나가이 세이고와 20세기의 타락
4. 장남으로서의 나가이 세이고
5. 나가이 세이고의 냉정한 모습
6. 결론

## Abstract

論者の考察を次の三点に要約する。

第一に、長井誠吾は社会的に見れば、出世もし、ある程度の財産もあって家の長男としての役割をしっかりと行っている成功者だといえることができる。長井誠吾は明治時代の典型的で模範的な長男として『それから』の中に描かれている。

第二に、長井誠吾の実体は会社のためにいつ拘引されるか知れないと思いつつも不正行為を行っている。家の名誉に傷を付けると判断すれば弟さえもきっぱりと切り捨てる冷徹な人間である。長井誠吾が会社の経営に不正な方法を用いて財産を殖やしていることは20世紀の道徳の墮落だと見て間違いないであろう。長井代助が20世紀の道徳の墮落とする象徴体が即ち長井誠吾である。

第三、父親の長井得は年を取ったので引退して家長としての全ての権利を長男である長井誠吾に譲り渡そうとしている。このような時期に、この先長井家を実質的に引張っていく兄、長井誠吾から長井代助が三千代との関係のため縁を切られるという事は長井得に勘当されるより精神的に大きな衝撃を受けることになる。長井代助において長井家の長男であり自分の兄である長井誠吾との訣別は単なる経済的援助の断絶以上に大きな衝撃であると言える。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 동의대학교 교양과정부 강의전담교원.

Key Words : 夏目漱石、それから、長井誠吾、長井代助、長男、20世紀の墮落

## 1. 서론

작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통해 창조해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의 작가에 대한 위대성은 인간의 조건 및 작품을 통해 나타낸 인간상에 대한 통찰의 깊이에 의해 결정된다. 어느 시대나 훌륭한 작가는 독자들에게 인간 유형의 의미 있는 초상화를 작품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sup>1)</sup>

문학 작품 속에는 작가가 그려낸 수많은 인간상이 출현하며, 독자들은 문학 작품을 통하여 수많은 인간상과 대면하게 된다. 독자의 한 사람인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작가가 그려낸 투쟁형, 화해형, 비극형, 희극형, 사업가형 등 여러 종류의 인간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분석해 내는 것은 문학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 일 것이다.<sup>2)</sup>

작품 『그 후(それから)』가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110회 걸쳐 연재된 것은 1909년(明治42) 6월 27일부터 동년 10월 14일까지이다. 당시 작가였던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의 나이는 만으로 42세였다.

소세키는 『그 후』가 「아사히신문」에 연재되던 중인 1909년 9월에 당시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州鐵道株式會社) 총재인 친구 나카무라 제코(中村是公)의 초대로 만주와 한국을 여행했다. 나쓰메 소세키의 일기를 분석해 보면 그는 만주를 여행한 후 1909년 9월 28일(화)에 한국 신의주에 도착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30일(목)에 서울(당시의 京城)에 도착하여 10월 13일(수)까지 16일간 서울에 체재하면서 서울 시내와 인천, 개성 등을 둘러보았던 것이다. 소세키가 1909년 10월 서울에 체재했을 때에도 『그 후』는 아사히 신문에 연재되고 있었던 것이다.<sup>3)</sup>

1) 리오 로웬달 저, 유종호 역 『文學과 人間像』(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84) pp.12~13 참조.

2) 김봉균 『문학 작품 속의 인간상 읽기』(민지사, 2002) pp.24~26 참조.

3) 平岡敏夫 編 『漱石日記』(岩波書店, 1994) pp.104~144 참조.

이제까지 일본을 포함한 국내외에서 발표된 『그 후』 연구물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편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일본과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물 숫자만 어림잡아도 550편 이상이다. 그러므로 『그 후』에 관계된 연구물을 수집하여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계산해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연구물 내용 전부를 낱알이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제까지 발표된 논문 가운데 참신하고 독창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후』 논문 두 편을 소개하면 사이트 히데오(齋藤英雄) 씨의 「진주반지의 의미와 역할-『그 후』의 세계-」와 야마모토 가쓰마사(山本勝正) 씨의 「소세키 『그 후』의 방법-바람의 묘사를 중심으로」를 들 수 있다. 사이트 히데오 씨는 작품 속의 남성이 여성에게 진주 반지를 주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작품을 정밀하게 분석했다.<sup>4)</sup> 야마모토 가쓰마사(山本勝正) 씨는 작가가 『그 후』에서 사용한 바람의 묘사 방법에 대하여 다각도로 철저하게 분석했다.<sup>5)</sup>

최근에 『그 후』 연구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는 윤혜영 씨이다. 윤혜영 씨는 작품 속에 매몰되어 있는 감각표현의 특징을 찾아내어 참신하고 독창성 있는 발표를 하여 소세키 연구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sup>6)</sup>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 국내외에서 발표된 『그 후』에 관한 연구물은 41편 이상이다. 한국인에 의해 발표된 『그 후』에 관한 연구물 가운데 주인공 나가이 다이스케(長井代助)와 미치요(三千代)의 의식변화, 심리변화, 인간상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10편 이상이다. 위의 자료를 보면 이제까지 발표된 많은 연구물이 나가이 다이스케와 미치요에게 초점이 집중되어 연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나가이 다이스케가 작품 속에서 일본 근대비판, 일본 문명개화의 어두운 그림자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어 국내 연구자들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후』의 나가이 세이고에 대하여 한국인 연구자가 이제까지 분석하여 발표한 연구물은 단 한편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까지 나가이 세이고의 인물상과

4) 齋藤英雄 「真珠の指輪の意味と役割-『それから』の世界-」(『夏目漱石Ⅲ』, 有精堂, 1985) pp.148~159 참조.

5) 山本勝正 「漱石 『それから』の方法-風の描写を中心に-」(『自然日本文学』, 広島女学院大学, 1992) pp.117~157 참조.

6) 윤혜영 「『산시로(三四郎)』와 『그 후(それから)』에 묘사된 감각표현 고찰」(『나쓰메 소세키의 전기 삼부작 연구』, 韓國夏目漱石研究會 編, 2005) pp.75~110 참조.

존재 가치에 대하여 연구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되어왔던 것이다.

『그 후』의 주인공은 나가이 다이스케이고 그의 눈을 통해 작품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나가이 다이스케는 『도련님(坊っちゃん)』의 주인공인 「봇짱」이나 『산시로(三四郎)』의 주인공 「산시로」 등 이전의 작품의 주인공과도 다른 독특한 성격과 개성을 갖춘 소유자이다.

그런데 『그 후』에 관한 연구를 나가이 다이스케의 일본 근대비판, 문명비판을 포함하여 나가이 다이스케와 여성 주인공인 미치요에게만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논하다 보면, 소세키가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인물상의 여러 유형, 작품창작 의도 등을 제대로 못보고 지나칠 위험성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후』의 핵심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연구자들로부터 그 존재가치가 거의 무시되어져 왔다고 여겨지는 나가이 다이스케의 형인 나가이 세이고(長井誠吾)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텍스트를 정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작품에 묘사된 나가이 세이고의 인간상 실제 분석, 나가이 다이스케와 관계 설정과 인물상 비교, 20세기의 타락, 작품창작 의도 등을 에도 시대 후기와 메이지 시대의 사회 문화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고찰해 보려고 한다.

국내외에서 이제까지 발표된 선행 연구물 가운데 본 논문과 관련 있는 선행 연구물을 찾아보았다. 일본에서 1997년에 사사키 아키라(佐々木啓) 씨가 발표한 「『그 후』 試論-長井誠吾の存在-」가 있다. 사사키 아키라 씨는 위 논문을 통해 「나쓰메 소세키는 나가이 세이고 라는 전형적인 실업가를 나가이 다이스케의 상위(上位)에 둠으로써 나가이 다이스케와 대비되는 인간상을 명확하게 그렸다」고 논했다.<sup>7)</sup>

국내의 연구물 가운데는 본 논문과 똑같은 연구 제목으로 발표된 연구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연구되어진 나가이 세이고에 관련된 선행연구물을 참고하여 독창성 있는 논을 전개해 보겠다.

본 논문을 전개하는데 있어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 「나쓰메 소세키」를 「소세키」로 이름만 간략하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7) 佐々木啓 「『それから』 試論-長井誠吾の存在-」(『北見大学論集』「第38号, 1997」 pp.12~14

## 2. 나가이 세이고와 나가이 우메코 관계

나가이 세이고(長井誠吾)는 나가이 도쿠(長井得)의 장남이고, 나가이 다이스케의 친형이다. 그의 외모는 키가 크고 살이 쪼들린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중년남성이다. 그는 문예 등에는 무관심하며 한마디로 놀랄 만큼 무식한 면을 갖고 있다. 반면에 신문을 자주 읽기 때문인지 신문에 나오는 내용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남자이다. 그는 회사 일 이외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며 특별히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지도 않다.

나가이 세이고의 처 나가이 우메코(長井梅子)는 키가 큰 날씬한 미녀이다. 그녀의 외모는 눈썹이 짙으며 살갗이 거무스름하고 입술이 얇은 여자로 묘사되어 있다. 나가이 세이고와 나가이 우메코와의 사이에 중학생인 15살의 장남 세이타로(誠太郎)가 있다. 세이타로의 외모는 모습은 어머니인 나가이 우메코를 닮았고, 어딘가 딱 막히지 않은 대범한 기상은 아버지인 나가이 세이고를 닮았다. 세이타로 아래에 12살의 장녀 누이(縫)가 있다. 나가이 세이고의 가족 네 식구는 부친과 함께 도쿄 아오야마(青山)의 나가이 본가에 살고 있다.

나가이 세이고 집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같은 악기가 있어서 집안에서 연주를 한다. 또한 영국산의 개를 키우며 고급 엽권련과 와인을 즐기며 살고 있다. 그의 집에서는 당시 서양의 문물을 상징하고 있었던 피아노, 바이올린, 와인 등을 받아들여 근대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가이 세이고는 사업관계로 대체로 집에 없을 때가 많다. 비빔 때면 집에서는 아침밥만 먹을 뿐이므로 아버지가 하루 종일 밖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의 자녀인 세이타로와 누이는 전혀 알지를 못한다. 하루 종일 집에서 세 끼 식사를 빠짐없이 가족과 함께 먹기라도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다.

나가이 세이고 자신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 접대는 나가이 우메코가 대부분 혼자 담당하고 있다. 일이 있으면 그는 밖에서 집으로 전화로 지시하는 때가 많다. 사업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아내인 나가이 우메코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나가이 우메코는 그런 남편에게 불만이 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이 낮에 집에 거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차분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가이 우메코 자신은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찾아 두 아이의 교육에 집중한다.

일본 근세시대에서의 가문은 주군에 대한 충성봉공(忠誠奉公)을 조건으로 존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개개인의 가정은 주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일원이고 공적인 존재였다. 즉 근세사회에서는 자녀도 가정을 존속시키는 공적인 존재이며 출산과 육아도 사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의 성립 이후 가정과 그 공동체와의 관계가 약해지기 시작하자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이 생기고 가정은 사적인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메이지 시대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에 자본주의가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근대적 직업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여자는 집안 일을 하고 남자는 공공영역, 즉 밖에서 일한다」는 새로운 근대가정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나가이 세이고의 가정은 「여자는 집안 일을 하고 남자는 밖에서 일한다」는 새로운 근대가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일본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차세대인 「국가의 자녀」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제도를 정책적으로 성립시켰다. 그 결과 그 때까지 가정에서 담당해 왔던 자녀교육의 일부분을 학교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여자이므로 일본 정부에서는 가정을 지키는 아내로서 또한 자녀를 교육하는 어머니로서 여자들을 계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연유로 인해 1899년(明治32)에는 고등여학교령(高等女学校令)을 시행하여 부자 집 딸을 대상으로 현모양처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sup>8)</sup>

나가이 우메코도 당시 이러한 일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을 생사간에 놓여 있는 일대사건으로 여기고 있다. 그녀 남편이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일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당시에 나가이 우메코가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그녀의 친정 집이 부유한 집안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나가이 세이고의 부친인 나가이 도쿠가 차남인 나가이 다이스케를 정략결혼 시키려고 했듯이, 장남인 나가이 세이고도 역시 부유한 집안의 딸과 혼인 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나가이 우메코는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

8) 小川静子 『家庭の生成と女性の国民化』(頸草書房, 1999) pp.11~25 참조.

다. 나가이 우메코는 시동생인 나가이 다이스케에게 200엔이나 남편 몰래 빌려줄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sup>9)</sup>

당시의 하급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약 29엔이었던 것을 고려하여 보면 나가이 우메코가 나가이 다이스케에게 빌려 준 200엔은 하급공무원이 7개월 간 일하고 받은 급료에 해당되는 상당한 금액이었던 것이다.<sup>10)</sup>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고 아내의 재산까지 남편이 관리하던 메이지 시대에 나가이 우메코가 200엔이나 되는 돈을 남편 몰래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남편인 나가이 세이고가 아내인 나가이 우메코에게 집안 살림을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메이지 시대에 나가이 우메코가 집안에서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집안 살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면도 있으나 그녀의 친정이 재산가였을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sup>11)</sup>

### 3. 나가이 세이고와 20세기의 타락

나가이 세이고는 학교를 졸업하자 곧 부친이 관계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중요한 지위에 취임한다. 당시의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기간에 탄생한 중소기업이 1907년(明治40) 1월에 있었던 주식의 대폭락으로 잇달아 쓰러지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불경기와 불황의 와중에도 재벌가들은 국가권력과 결탁해서 산업독점의 형태를 조성하여 자본을 늘려나갔다. 당시 시대에 중소기업을 안정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쥔 사람들과 잘 어울리던가, 그것도 아니면 이 시기에 새롭게 부상한 재벌가들과 인연을 맺어 일거리를 따낼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회사를 경영하는 나가이 세이고도 권력자가 모이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얼굴을 내민다. 그는 그 누구의 비위도 거스르지 않는 화제를 많이 만들어 언제까지라도 화제가 끊기는 일이 없이 권력자들과 어울리면서 그

9) 사용된 텍스트는 「夏目漱石『それから』(岩波書店, 1989)」이다. 뒤따르게 될 텍스트 인용은 여기 서처럼 「텍스트」8」 p.116 참조와 같이 각주에 간략하게 표기하겠다.

10) 텍스트 「주」 p.302 참조.

11) 메이지 민법 801조(메이지31년 시행). 관련 인터넷 사이트 「[http://www.geocities.jp/nakanolib/hou/m4\\_o.htm](http://www.geocities.jp/nakanolib/hou/m4_o.htm)」 참조.

들의 비위를 맞춘다. 마치 해파리가 바다에 떠다니듯이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이 세이고는 권력자와 사업가들 사이사이를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생활의 대부분을 회사 일 때문에 소비해도 그는 의기양양하지도 낙담하지 않는다. 나가이 세이고는 당시 시대 사업가로서는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나가이 다이스케는 부친과 형이 모든 점에서 윤리적으로 떳떳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나가이 다이스케는 당시 시대에 일어난 뇌물수수 사건인 「닛토사건」의 주인공 일본제당의 중역들처럼 부친인 나가이 도쿠와 형인 나가이 세이고도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한다.<sup>12)</sup>

나가이 세이고는 세상일이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일본제당의 중역들처럼 우리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조사를 받으면 언제 구인(拘引)될지 모른다」고 동생인 나가이 다이스케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한다. 「우리도 언제 구인될지 모른다」고 하는 나가이 세이고의 말을 고려해보면 그가 사업을 떳떳하고 깨끗이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sup>13)</sup>

나가이 다이스케는 아버지와 형의 재산 형성 과정이 누가 보아도 납득할만한 방법에 의해 모아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가이 도쿠와 나가이 세이고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회사를 번창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문사에 들어가 경제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나가이 다이스케의 친구인 히라오카(平岡)는 일본제당 사건만으로는 기사를 쓰는데 부족한 점을 느낀다. 그러므로 나가이 집안에서 경영하는 회사의 내막을 파헤쳐서 신문 기사화 하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본 근세시대의 가정은 주군에 대한 충성봉공(忠誠奉公)을 조건으로 존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개개인의 가정은 주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일원이고 공적인 존재였다. 모든 생활과 사고는 영주에서 출발하여 영주를 위하는 것이 성(誠)이자 정의였다. 나가이 도쿠와 나가이 세이고가 생각하는 선악(善惡)의 판단은 나라와 주군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충성봉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본 근세시대에 교육을 받고 살아왔던 나가이 도쿠는 시대가 바뀌어 메이지 시대가 되어 영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주 자리에 메이지 정부를 바

12) 텍스트 「8」 p.113 참조.

13) 텍스트 「9」 p.131 참조.



꾸어 집어넣었을 뿐 옛날의 사고와 습관을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나라와 가문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부정한 행위라도 성(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가이 도쿠다. 즉 부친인 나가이 도쿠는 회사의 부정을 죄악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신시대의 교육을 받은 나가이 세이고는 부친인 나가이 도쿠와는 달리 회사 경영의 부정을 죄악이라고 인식한다. 즉, 나가이 세이고는 부정이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의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나가이 다이스케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은 상대가 지금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서로 연연중에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평한다. 또한 그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은 그런 모욕을 가하고,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빈들빈들 놀고 있다」고 말한다.<sup>15)</sup>

나가이 다이스케로서는 행동하기 힘든 일을 형인 나가이 세이고는 어렵지 않게 해내고 있다. 그는 일본 현대사회의 양상을 「20세기의 타락」이라고 아래와 같이 비판한다.

다이스케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으로 서로를 모욕하지 않고서는 감히 서로에게 접촉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양상을 20세기의 타락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요즘 들어 갑작스럽게 팽만해진 생활욕(生活欲)의 고압력(高圧力)이 도의심의 붕괴를 초래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한 그것은 신구(新舊)의 가치관의 충돌로 간주했다. 결국 눈에 띄게 커진 그 엄청난 생활욕은 유럽으로부터 밀어닥친 해일이라고 결론지었다.<sup>16)</sup>

나가이 다이스케는 서로를 모욕하지 않고서는 감히 서로에게 접촉할 수 없는 현대 일본사회의 양상을 20세기의 타락이라 보고 있다. 그는 20세기의 타락이 오게 된 것은 요즘 들어 갑작스레 팽만해진 생활욕이 도의심의 붕괴를 초래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14) 권혁진, 다케이치 치에 「나쓰메 소세키의 『그 후(それから)』에 묘사된 인간상 고찰-나가이 도쿠(長井得)를 중심으로-」(『나쓰메 소세키의 전기삼부작 연구』, 韓國夏目漱石研究會 編, 2005.08) pp.160~164 참조.

15) 텍스트 「9」 p.127 참조.

16) 텍스트 「9」 p.126 참조.

사람이 일정한 환경에서 생계나 살림을 꾸려 나가며 활동하고, 조직체에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생활 의욕을 포괄적으로 「생활욕」이라고 한다.<sup>17)</sup> 팽만해진 생활욕 때문에 부정이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의 이익 추구를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나가이 세이고는 나가이 다이스케가 말하는 「20세기의 타락」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8)</sup>

#### 4. 장남으로서의 나가이 세이고

메이지 시대는 메이지 민법으로 인해 가부장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되고 가정은 가장인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장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메이지 민법 747조), 가족의 혼인은 가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어긴 자를 호적에서 빼낼 수 있는(메이지 민법 750조) 조항 등 많은 권한이 가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시대에 집안의 모든 권한과 모든 재산을 이어받을 사람은 장남이었다. 차남 이하의 남자와 여자들은 아무 권리도 없이 가장과 장남의 의견을 따라야 했다. 장남에게는 다른 형제와 비교할 수 없는 특혜가 주어졌지만 장남은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을 유지하고 늘려나가는 것이 지켜야 할 바른길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장남은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나가이 다이스케는 서른 살이 되어도 일도 안하고 부친인 나가이 도쿠로부터 매달 돈을 원조 받아 이른바 고등유민(高等遊民)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메이지 시대에 아무리 부자 집이라 해도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생활비를 원조 받고 있으나 정확하게 부친의 돈인지 형의 돈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생활비를 매월 받고 있는 것이다.<sup>19)</sup>

나가이 다이스케에게 본가에서 매월 붙여 주는 생활비가 나가이 도쿠의 돈이라고 하지만, 회사를 위해 매일 분주하게 뛰고있는 나가이 세이고의 양해 없이는 줄

17) 한글학회 저 『우리말큰사전』(어문각, 1994.5) p.2239

18) 텍스트 「9」 p.126

19) 텍스트 「3」 p.31

수 없는 돈이다. 그러므로 나가이 세이고가 마음만 먹으면 부친인 나가이 도쿠에게 의견을 제시해서 마냥 철없이 놀며 지내고 있는 동생 나가이 다이스케의 생활비 원조를 중지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부친인 나가이 도쿠는 둘째 아들 나가이 다이스케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아무래도 앞으로 전망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자식인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다. 그때 나가이 세이고는 저렇게 놀면서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제법 사리에 밝은 편이니 당분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대로 놓아두어도 잘못되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동생 나가이 다이스케를 변호하면서 부친의 마음을 달랠 적이었다.<sup>20)</sup>

또한 나가이 세이고는 부친인 나가이 도쿠와는 달리 까다로운 설법(說法) 따위를 동생에게 말한 적이 없다. 주의, 주장, 인생관과 같은 복잡하고 거북스러운 이야기는 동생에게 아예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는 동생을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는 메이지 시대의 장남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sup>21)</sup>

나가이 세이고는 그렇게 동생을 감싸주는 한편 나가이 가문의 장남으로서 부친인 나가이 도쿠를 도와 가문을 잘 이끌어 나갔다. 평상시에 나가이 세이고는 회사 일을 위해 하루 종일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닛토사건 때처럼 회사가 어려움에닥치면 나가이 도쿠와 합심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력했다. 집에서는 나가이 도쿠와 집안의 골칫거리인 나가이 다이스케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동생인 나가이 다이스케에게는 나이 든 부친을 걱정시키지 말라고 항상 당부한다.

메이지 시대의 가부장제도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결혼이다. 가문을 유지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대를 이을 후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과의 결합이고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없었던 당시는 당사자의 의지보다도 가문이 중요시되고 한두 번 만나서 바로 결혼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집안의 장남 결혼은 그 가문의 운세를 좌우하는 중대사였기 때문에 나가이 세이고의 아내 나가이 우메코는 나가이 도쿠의 눈에 든 집안의 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부친인 나가이 도쿠가 차남인 나가이 다이스케에게 사가와라는 재산가 집안의 딸과 결혼을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가이 세이고도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

20) 텍스트 「6」 p.82

21) 텍스트 「5」 p.70

에 가문의 이익에 도움이 될 만한 상대를 찾아 혼인을 맺었을 것이다.

당시 그런 대로 괜찮은 조건인 사가와 집안 딸과의 결혼을 승낙하지 않는 나가이 다이스케에게 나가이 세이고는 「그렇게 결혼 상대를 고르고 또 고르고 할 정도로 중요시하는 건 어쩐지 겐로쿠(元祿)시대의 호색한 같아서 우스꽝스럽구나」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나가이 세이고의 위의 말을 분석해보면 그는 아내는 자신의 취향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양가 집안과 여러 조건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2)</sup>

## 5. 나가이 세이고의 냉정한 모습

나가이 다이스케의 결혼문제에 대해서 나가이 세이고는 사가와라는 재산가 집안의 딸과 결혼하기를 권하지만 나가이 도쿠처럼 강력하게 강요하고 설득하지는 않는다. 평상시에 나가이 다이스케를 대할 때처럼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체로 동생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

그러나 결코 나가이 다이스케가 아무 여자와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나가이 세이고도 부친인 나가이 도쿠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략결혼의 성사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가문의 번성을 바라는 장남 입장에서 동생이 재산가의 딸과 결혼하는 것에 반대할 리가 없다.

나가이 세이고는 나가이 다이스케에게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내가 가난해지면 날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나가이 세이고도 나가이 다이스케의 결혼에 의해 가문의 번성과 회사 경영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친인 나가이 도쿠와 마찬가지로 나가이 세이고도 집안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재산가의 딸과 결혼을 한 나가이 다이스케의 도움을 얻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나가이 다이스케의 결혼을 계기로 가문이 더욱 번성되기를 바라고 있다.<sup>23)</sup>

그것은 나가이 다이스케와 미치요와의 사실 관계가 알려진 후에 여실히 드러난

22) 텍스트 「12」 p.187

23) 텍스트 「9」 p.130

다. 유부녀인 미치요와 남은 인생을 함께 하려고 하는 나가이 다이스케의 본심을 알고 난 이후, 그때까지 평소 동생을 감싸주고 잘 챙겨 주었던 나가이 세이고의 태도가 갑자기 일변한다.

너는 평소부터 잘 이해할 수 없는 놈이었다. 그래도 언젠가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오리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인간이라고 나도 체념했다. 세상에 엉뚱한 인간만큼 위험한 인간은 없다. 무슨 일을 저지르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안심을 할 수가 없다.<sup>24)</sup>

평소 동생 나가이 다이스케는 제법 사리에 밝은 편이므로 그대로 놓아두어도 잘못되지는 않을 테고 조만간 뭔가 할 것이라고 변호했던 나가이 세이고였다. 하지만 그는 히라오카의 부인인 미치요와 나가이 다이스케가 미래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 너는 「평소부터 잘 이해할 수 없는 놈이었다」는 말로 동생을 심하게 꾸짖는다.

이제까지 동생 나가이 다이스케의 행동을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을 지라도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나가이 세이고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은 나가이 다이스케의 사고나 심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생인 나가이 다이스케가 자신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즉, 언젠가는 나가이 다이스케도 나가이 가문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나가이 다이스케가 나가이 가문이라는 운명공동체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가이 세이고가 동생 나가이 다이스케에게 「이번에야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 체념한다」고 말했지만 형이 그가 스스로 나가이 다이스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간 적은 없었다. 나가이 세이고는 여간해서 나가이 다이스케를 찾아가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고 어쩌다 찾아가면 그건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용건이 있을 때였다. 그리고 용건을 말하는 것이 끝나면 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나가이 다이스케와 미치요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부친인 나가이 도쿠의 심부름으로 나가이 다이스케를 찾아가서 나가이 다이스케와

24) 텍스트 「17」 p.297

히라오카의 부인인 미치요와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확인하고서는 그는 「바보 같은 짓(馬鹿な事)」, 「불미스러운 일(不始末)」, 「장난질(惡戯)」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해 버린다.

나카이 세이고는 시간을 갖고 동생이 처한 환경과 속마음을 차분하게 들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동생 나카이 다이스케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며 동생을 간곡하게 타이르려고 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는 친구의 부인을 사랑하여 간통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궁지에 처한 동생에게 따뜻한 형제애의 정(情)을 베풀려고도 하지 않는다.

동생 나카이 다이스케를 「위험한 인간」, 「안심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나카이 세이고는 단정해 버린다. 그가 어째서 동생을 「위험한 인간」, 「안심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보았던 것인가? 그것은 나카이 다이스케가 부친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가문의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적 지위와 가문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빛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부친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가문의 명예가 높아져 가는 것이 바로 회사의 경영과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시대나 대부분 그렇지만 메이지 시대에도 입신출세주의와 금권주의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다. 때문에 메이지유신 이후에 탄생한 신흥자본가들은 일본 국민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기에 나카이 세이고도 메이지 시대 일본의 대부분의 경영자가 그랬듯이 회사 경영을 통한 많은 부(富)를 축적하는 것이 가문의 명예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나카이 세이고에게 「회사의 이익이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회사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나카이 세이고의 태도는 아주 냉철할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 나카이 세이고는 동생 나카이 다이스케의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히라오카의 취직 부탁과 돈을 꾸어달라는 것을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일언지하에 거절한 적이 있다. 그때 만약에 회사의 이익에 관계되는 사업가의 부탁이었다면 나카이 세이고는 그렇게 쉽게 냉정하게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정이나 사정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돈을 벌 수 있는 일, 이익을 내는 일, 부(富)를 축적해 나가는 일만이 그가 행동을 취하는 판단기준이 되었던 것이다.<sup>25)</sup>

그래서 나가이 다이스케가 미치요와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나가이 세이고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나가이 다이스케가 앞으로 가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였다. 그런데 나가이 다이스케는 사가와라는 재산가 집안의 딸과 정략결혼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유부녀인 미치요와 불륜을 범하려고 한다. 나가이 다이스케는 가문에 도움을 주려는 커녕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위험한 존재로 부상된 것이다. 그는 장남으로서 나가이 다이스케의 행동의 결과가 부친과 자신의 사회상의 지위, 가족의 명예 등에 얼마만큼 손상을 끼칠 것인가에 대하여 크게 염려했다.

결국 나가이 세이고는 나가이 다이스케를 더 이상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냉정하게 의절해 버린다.

아버님이나 내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보아라. 너라고 가족의 명예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 (중략) 히라오카의 말이 전부 근거가 있는 사실이라면 아버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앞으로 평생 다이스케와는 만나지 않겠다. 어디를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 대신 앞으로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버지라고 생각지도 말아달라고 말이다. (중략) 「너는 바보천지다」라고 형이 크게 소리쳤다. 다이스케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얼간이 녀석」하고 형이 또 말했다. (중략) 형은 「나도 이제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내뱉듯이 말하고는 현관으로 났다.<sup>26)</sup>

형(兄)인 나가이 세이고로부터 「너는 바보천지다」, 「얼간이 같은 녀석」이라고 욕을 먹은 다음 의절(義絶)당한 나가이 다이스케는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말하면서 햇볕이 뜨겁게 내려 쬐는 도쿄 거리로 뛰어나갔다. 나가이 다이스케는 폭폭 찌는 듯한 거리를 뛰듯이 급한 걸음으로 걸었으나 태양은 그의 머리 바로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는 오글오글 타들어 가는 느낌이 들었다. 도쿄 이다바시 역에서 전차를 탄 그는 전차 안에서 「아. 움직이는구나. 온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옆 사람이 들릴만한 소리로 말했다. 그의 머리는 전차의 속력에 비례해서 어지럽게 돌기 시작했으며 점점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sup>27)</sup>

25) 텍스트 「6」 p.76

26) 텍스트 「17」 pp.297~299

27) 텍스트 「17」 pp.299~300 참조.

위와 같은 결말 부분의 문장을 분석해보면, 형인 나가이 세이고에게 「바보친지다」, 「얼간이 같은 녀석」이라고 욕을 먹으면서 의절 당한다고 하는 것은 부친인 나가이 도쿠에게 의절 당하는 것보다 나가이 다이스케에게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 6. 결론

위와 같이 「나쓰메 소세키의 『그 후』에 묘사된 나가이 세이고」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논자가 이제까지 점검한 것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셋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나가이 세이고는 사업가로서 사회적으로 출세도 하고, 풍부한 재산도 있으며, 집안의 장남으로서 역할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메이지 시대의 성공한 남자이다. 그의 외견상의 삶은 당시 시대 대부분의 일본 남성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평소에 동생인 나가이 다이스케를 잘 챙겨 주고,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부모님이 정해준 직업을 택해 열심히 일하고, 집안에서 정해진 상대와 결혼을 하여 아들과 딸을 낳아 가문을 지켜 나가는 그는 메이지 시대의 아주 모범적인 장남의 모습으로 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다.

**둘째**, 나가이 세이고의 또 다른 실체는 회사 일 때문에 언제 구속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문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다고 생각하면 동생마저도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냉철한 남자이다. 그에게는 부친인 나가이 도쿠처럼 부정을 하면서도 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은 없다. 팽만해진 생활욕 때문에 일하고 도의심이 붕괴한 당시 시대의 사회를 나가이 다이스케는 「20세기의 타락」이라고 말했다. 나가이 세이고가 팽만해진 생활욕 때문에 부정이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 경영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것은 20세기 도덕의 타락이라고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가이 다이스케가 20세기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상징체가 바로 자신의 형인 나가이 세이고였던 것이다.

**셋째**, 부친인 나가이 도쿠는 나이가 들어 은퇴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모든 권



리를 장남인 나가이 세이고에게 물려주려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앞으로 나가이(長井) 가문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형 나가이 세이고로부터 나가이 다이스케가 미치요와의 관계 때문에 의절을 당한다는 것은 부친인 나가이 도쿠에게 의절 당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나가이 다이스케에게 있어서 집안의 장남이자 형인 나가이 세이고와의 결별은 단지 경제적 원조 단절 이상의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소세키 문학을 연구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독파하고 이해하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를 분석하다보면 선행연구라는 우물 속에 폭 빠져서 우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관계로 독창성 있는 논문을 쓰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 후』에 관한 선행연구도 주인공 나가이 다이스케와 미치요에 관련된 논문이 산더미처럼 많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읽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발표된 선행연구 주위를 맴도는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이제까지 소세키 연구자들로부터 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던 『그 후』의 나가이 세이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의 심리변화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작자가 작품을 통해 조형해 내려고 했던 전체적인 인물상, 나가이 세이고 실체 분석, 나가이 다이스케와의 관계 설정, 20세기의 타락, 작품창작 의도 등을 새롭게 점검하여 미흡하나마 나름대로 결론을 유도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권혁건(2001) 「한국에 있어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문학연구』 「창간호」, 제이앤씨, p.90
- 김봉균(2002) 『문학 작품 속의 인간상 읽기』, 민지사, pp.24~26
- 리오 로웬달 저, 유중호 역(1984) 『文學과 人間像』,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pp.12~13
- 윤혜영(2005) 「『산시로(三四郎)』와 『그 후(それから)』에 묘사된 감각표현 고찰」 『나쓰메 소세키의 전기 삼부작 연구』, 韓國夏目漱石研究會 編, pp.75~110
- 한글학회 저(1994)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p.2239
- 小川静子(1999) 『家庭の生成と女性の国民化』, 頸草書房, pp.11~25

- 齋藤英雄(1985) 「真珠の指輪の意味と役割-『それから』の世界-」 『夏目漱石Ⅲ』 有精堂, pp.148~159
- 佐々木啓(1997) 「『それから』 試論-長井誠吾の存在-」 『北見大学論集』 第38号, pp.12~14
- 平岡敏夫 編(1994) 『漱石日記』, 岩波書店, pp.104~144
- 三好行雄 編(1990) 『夏目漱石事典』, 學燈社, pp.10~108
- 山本勝正(1992) 「漱石 『それから』の方法-風の描写寫を中心に-」 『自然日本文学』, 広島女学院大学, pp.117~157

- ❖ 투고일 : 2006. 6. 30
- ❖ 심사일 : 2006. 7. 31
- ❖ 심사완료일 : 2006. 8. 11